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	
배포일시	2019. 1.23(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2019 LA Art Project 2: <Core Evolution> 전시 개최

“우먼 파워; 세명의 여성 파이오니아를 만나다”



2019 LA Art Project II

Core Evolution

February 1 - 15, 2019

Gallery Open Hours: Mon-Fri 10am-5pm / Sat 10am-1pm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323-936-3014

- ▶ 전시명 : Core Evolution (변화의 중심)
- ▶ 전시기간 : 2019.2.1(금) - 2.15(금)
- ▶ 개막식 : 2019.2.1(금) 19:0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초대작가 : 박윤정, 원미랑, 현혜명
- ▶ 개막식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불임 :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전시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 17:00 / 토 10:00 -13:00

LA한국문화원은 2019년 2월 전시로, LA Art Project 2 "Core Evolution (변화의 중심)" 전시회를 2.1(금)부터 2.15(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원미랑), 샌디에고(박윤정), 그리고 로스앤젤레스(현혜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세 여성작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45여점을 소개한다.



HEI MYUNG C. HYUN



YOONCHUNG PAR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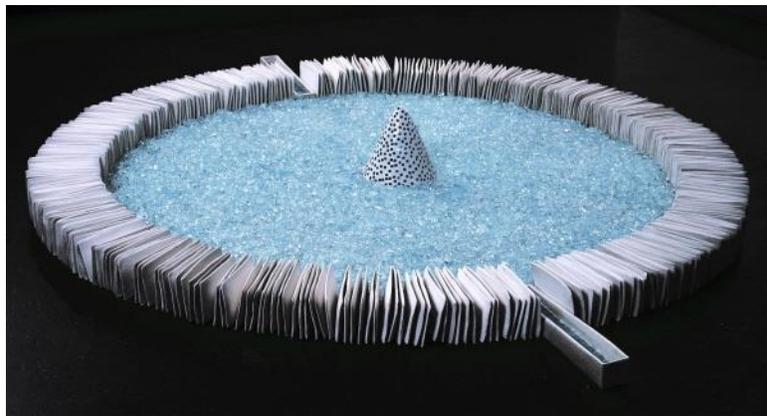


MIRANG WON

Korean-American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1960년대 당시에는 흔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활동은 더더욱 어려웠던 시기였다. 1960년대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미국, 프랑스에서 공부를 시작한 이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과,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념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혼돈을 거치면서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갔다. 동양과 서양 문화와의 융합,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계를 단단한 말뚝을 박아가며 차근차근 걸어나갔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뿌리를 내린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에서 아직도 새로운 작품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갖고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 박윤정 (Yoonchung Park Kim)

그녀에게 작품을 한다는 것은 미지수에 대한 방향을 하나씩 둘씩 결정지며 성공과 실패가 나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끊임 없는 호기심이기도 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기심과 미지수, 긴장감이 그녀에게는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평생 한가지 만을 추구하여 "...의 대가"가 되기 보다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작가의 신념대로, 이 전에 만든 작품에 도전하는 "항상 실험작을 만드는 태도"로 임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얼음과 물" 과 "글을 보내며" 라는 두 다른 시리즈 작품들을 보여 주고 있다.



Installation, 365 for One 8x70x62inches porcelain, glass & light

"얼음과 물"은 알래스카의 광대한 빙하를 보며 인간으로서 시간적이나 크기로 느끼는 겸허함과 순간적인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 하고자 했다. '인간과 자연' '순간과 영원'들을 작품에 담고자 시도 했다.



Sending writings II 20 x 26 x 3 Clay and glass

"글을 보내며" 시리즈는 가끔씩 적는 그녀의 글과 몇 년전 타계한 작가의 남편 글을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바닷가 파도에, 그리고 집 과수원에 보내면서 아직도 그와 대화를 해 보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업도 '순간을 영원' 으로 만드는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 원미랑 (Mirang Wonne)

그녀의 작품은 캘리포니아의 햇빛을 담은 듯, 작품 표면에 흐르는 빛이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얇고 부드러운 금속망 위에 불로 태워져 기록된 꽃잎들은 아름답지만 곧 사라져 버리는 존재의 확실성과 순간성의 상징으로. 그안에는 잃어버린 햇살, 잊혀질 것 같은 아름다움, 지나간 시간들을 영원히 기록해둘 수 있지않을까 하는 작가의 기대가 담겨있다. 붓대신 불꽃을 들고 철망을 구워 그린 선들은 작가가 만들어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다. 엄청났던 열정과 열망, 태양 아래에서 눈 부셨던 기억을 따라 형태를 잡아가다 보면 선들은 점점 커져서 알아볼 수 없이 커다란 꽃으로 어느새 자라나있다. 금속망으로 된 얇은 스크린을 천장에 건 설치작업과 함께 채색된 종이 위로 금속망을 높은 평면작품 등 기법과 소재에서 여전히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Installation "Lines and lights"
Double layers of stainless steel mesh, torched and acrylic painted, wooden bars.



"Gold Tree 7240-1 & 7240-2"
72x40 inches, 24K, 18K and 12K genuine gold leaf on double layers of torched stainless steel mesh, wrapped over the canvas

"자연 속에서 지고 피고 또 지는 과정과 휘날리는 꽃바람, 또는 뜨거운 햇살 속의 한없는 에너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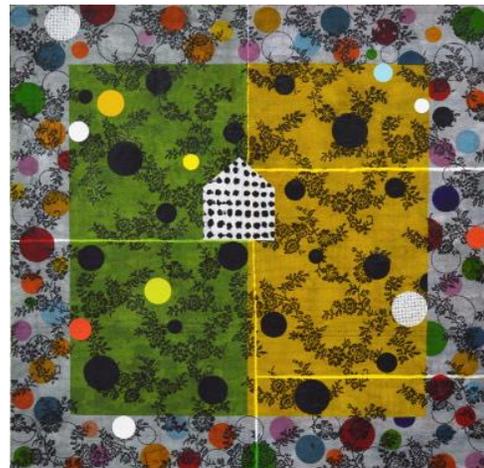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러나 잡혀지지 않는 순간순간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 변하는 순간 속에 확실히 존재하는 영구성과 무한성을, 흔히 보며 지나쳐 버리는 '꽃잎'이란 형태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 **현혜명 (Hei Myung C Hyun)**

그녀의 작품 안에 영감을 불어 넣는 것은 그녀의 지나온 과거이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작가는 서울에서 공식적인 미술 교육을 시작했지만 미국에서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척박한 외국 땅에서 자리잡기 위해 그녀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혔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작가의 뿌리를 잃어버렸거나 누실되었거나, 그렇다고 이득을 봤거나 하는 그 어느 한쪽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하거나 버리는 일이 아니라, 일부를 선택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하려고 도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녀를 예술가로서 더욱 풍성하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거대한 대양에서 그녀는 광범위 하면서 더욱 깊은 비전의 근원을 발견 하였다. 동양과 서양이 결합된 예술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예술가로서의 독특한 경험을 그녀의 작품 속에 반영하는 엄청난 성취를 가졌다.



Hope 1803-1804' 60x76 2018 Mixed Media



Romance 1801' 40x40 2018 Mixed Media

문화 간 밀고 당기는 일은 그녀의 작품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동양과 서양, 전통성과 현대성, 추상과 형상 등 동서양의 예술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시각적 도구와 구성의 구조들이 부딪히는 긴장감이

작품에서 재창조 된다. 그녀의 작업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격자, 스크린, 패치 및 조각은 일상의 경험에 대한 소우주를 표현한 시간의 공간적 변화를 의미한다.

2019 LA Art Project 두번째 전시인 <Core Evolution (변화의 중심)> 전시는 2019. 2.1(금) 19:00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2.15(금)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